

창원시 팔용동 부근 철도횡단 지하차도 신설 추진

- 통행불편 해소해 주거환경 대폭 개선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진해선 창원~신창원역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과 마산회원구 구암동을 잇는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한다.

지하차도는 창원시 요청에 따라 진해선 철도를 가로질러 연장 50m, 폭 12m, 통과높이 2.5m로 설치되며, 사업비 약 25억원이 창원시가 부담하고 설계 및 공사는 공단에서 시행한다.

본부는 오는 10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빙기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여 2015년 6월 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최 본부장은 "지하차도 신설로 철로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도로 단절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하차도 설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협력사 '생산성경영 시스템 인증' 지원

-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추진 -

연구원(원장 임영록)은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중소기업협력사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심사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역본부의 추천과 전문기관의 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은 중소기업이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제도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4개 업체의 인증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철도건설분야 경쟁력을 높여 상호간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수인선 지아수원역 방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중추역인 지아수원역구간을 8월 12일 불시 방문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최근 노량진 수몰 및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를 비롯한 일련의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수인선 지하 수원역과 본선터널구간을 직접 둘러본 서 장관은 재난대비 매뉴얼, 수방대책 수립의 적정성,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외국인 및 신규근로자의 안전도 식별체계에 대하여는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현장 근로자와 직원들을 격려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본부 이상현 기자)

KR소년단 문화 체험 행사 추진

- 여름방학 맞아 철도건설현장 견학, 물놀이 행사 시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8월 13일 철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이하 KR소년단) 40여명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갈산터널 건설현장을 견학하고 아산 스파비스에서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철도건설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현장견학을 마친 후에는 더위를 잊도록 아산시 소재의 워터파크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겼다.

경영지원실은 2010년부터 전국의 철로변 거주 소외계층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KR소년단'을 구성하여 장학금 지급, 교복 및 학용품 지원, 철도사랑캠프 행사 등을 전개하는 'KR 소년단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계시판

주요뉴스 ('13.8.19~'13.8.25)

- 내달 원주~횡성 간 복선전철 공사 착수 (강원일보18)
- "횡성 상대리 구간 지중화 불가" (강원도민18)
- 남북 공동변영 루트 유리아시철도 연결하자 (매일경제06)
- 옛길리는 정책, 혼란스런 국민 (매일경제35)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연내 개통 (동아일보16B)
- 동대구역 2016년 새로운 역사 시작된다 (영남일보03)
- 청·정부 "경제활성화 14개 法案 국회가 발목 잡아" (조선일보03)
- 브라질, 교통망 확충 2년간 93조원 쏟아붓는다 (한국경제08)
- 태백선 제천~입석리 복선화전철 11월 마무리 (충청투데이19A)
- 지하 40m 아래... 스크린도어·탑승구 등 막바지 공사 한창 (경기일보07)
- "비정상 관행 척결을"... 공직개혁 다잡기 (한국경제10)
- 토목 인력 어디 없소 (서울경제27)
- 21세기 비단길 '실크철도'의 경제학 (조선일보29)
- 호남고속철 '1호 열차' 위풍당당 (파이낸셜22)
- 2015년 서울~목포 2시간... 무류 공간 넓어져 한결 편안 (서울경제02)
- 호남고속철 1호 고속열차 10량 공개 (동아일보14)
- 호남고속철도 운행 1호열차 10량 공개 (국민일보10)
- 2015년부터 달릴 3세대 KTX (조선일보12)
- 호남고속철에 투입될 새 KTX (매일경제27)
- 호남고속철에 투입될 신형 KTX (한국경제14)
- 안전하고 편안한 새 고속열차 (한국일보15)
- 동서고속철 정부예산 반영 이르러 오는 판가본된다 (강원일보03)
- 140개 국정과제 실현 위한 구체적 수단 (국민일보05)
- 건설경기 불황일때 산재 발생도 늘어난다 (동아일보12)
- 철도대학원 1기생 전원 석사 취득 (충청투데이22)
- 호남고속철 광주차량기지 공사 순조 (전남일보08)
- '행복주택' 오류·가짜 우선 지장... 5곳은 보류 (국민일보15)
- 철도 경쟁체제 때문에... 진통 겪는 코레일 사장 공모 (조선일보12)
- "월곳~판교 복선전철 반드시 조기 건설" 목청 (경기일보04)
- GTX시민연대, 두번째 감사 청구 (경인일보 02)

사업비절감 사례발표 및 신규절감 공모 발표회 개최!!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전직원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절감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발표 및 신규절감 공모'를 시행한 결과 절감사례 23건, 신규절감 35건(총 52억원 추가 절감)을 발표했다.

8월 20일에는 수도권본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친 12건(시공사 8건, 감리단 3건, 공단 1건)에 대해 발표회를 가졌으며, 특히 시공사 및 감리단이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절감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본부는 2013년 667억원의 사업비 절감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공모내용을 추가해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계획이며, 공모 결과를 각 현장과 공유해 향후 유사 사례를 적용한 사업비절감요소 발굴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철도건설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항상 사업비절감 요소를 찾아 국가예산을 아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강조했다며 사업비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

경부선 양산시 원동천교 교량개량 공사착수

- 열차운행 진동·소음 저감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양산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부선 삼랑진역과 원동역 사이에 위치한 원동천교 개량공사를 2013년 8월 본격 착수하여 2016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1944년 건설된 노후교량인 원동천교는 교각간 간격이 19m로 다른 교량보다 짧고, 교량높이도 12.8m로 낮아 원동천의 흐름을 방해해 상습적인 침수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갈이 없는 철구조물 형태로 열차운행 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

원동천교 개량공사는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량의 상·하선을 폭 8m, 길이 114m 규모로 건설하는 공사로, 교각 간격을 28.5m로 넓히고 교량높이도 2.2m 더 높여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홍수위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콘크리트 교량상부에는 자갈을 깔아 철도운행 시 소음과 진동을 줄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게 된다.

이 본부장은 "원동천교 개량공사는 1일 140여회의 열차가 통과하는 운행선에서 진행되는 어려운 공사로 철저한 안전시공과 품질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철교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태백선 제천~쌍용 전기 시스템 공사 본격 추진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11월 14일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연장 14.3km) 개통을 위해 노반공사와 궤도공사를 완료하고 전기 시스템분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개통되면 양회 및 무연탄 등의 철도 수송이 원활해지고, 제천시는 철도노선이 외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촉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사다리차 전차선 가선 시공



모터카 전차선 조정

이번에 개통되는 태백선 제천~쌍용 구간은 전국 철도노선 중 화물 수송량이 가장 많은 구간 중 하나며 중앙선·태백선·충북선이 만나는 구간으로, 제천역과 입석리역의 선로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야간에 열차운행을 차단하고 공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역구내에서 단계별로 선로 모양을 변경하는 작업은 열차운행이 중단된 짧은 시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제도, 전차선, 신호를 동시에 작업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다. 본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공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26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철도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허범 전기IPM부장은 "본부는 올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등 많은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사업도 적기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경 조 사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안희목 차장 모친상 - 발인 : 2013년 8월 18일
-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 오주환 사인 모친상 - 발인 : 2013년 8월 21일